

陶山書堂의 傳統 立地環境

박정해*

차례

- I. 머리말
- II. 退溪의 風水認識과 活用
- III. 陶山書堂의 傳統 立地環境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전통 입지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풍수는 현대과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입지관과 지리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잣대로 풍수는 그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인식적 사고를 가지고 풍수를 논하고 실제 입지에는 어떤 활용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퇴계 선생도 도산서당의 입지선정에 풍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입지선정에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山陵議狀』을 통해 조선에 영향을 미친 형세풍수는 주자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지대한 영향을 조선에 미쳤다. 형세풍수를 중시하는 풍수논리는 비단 도산서당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에 입지한 서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것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영남지역의 풍수인식도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의 학문과 풍수실력이 반영되어 영남학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도산서당은 형세론에 바탕을 두고 입지를 선정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강사.

주제어

퇴계, 도산서당, 풍수, 형세론, 전통입지

I. 머리말

『退溪集』 「陶山雜詠 併記」에는 마치 한 편의 시를 대하는 것처럼 도산서당 주변의 지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현대풍수가들이 쓰는 답사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時空을 초월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퇴계의 도산서당 입지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안동시 도산면 도계리에 위치한 도산서당은 추후 서원으로 확대되어 퇴계학파의 중심서원으로 영남유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퇴계는 50세에 낙향하여 寒棲庵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다 57세에 陶山書堂을 착공해 61세에 완공한다. 퇴계는 학문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탐구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원건설에 앞장섰으며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초야에 묻혀 학문에 매진코자 하였다. 그의 학문탐구에 대한 열정과 바람 그리고 입지선정의 자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있다.

『東文選』에 소개된 李奎報(1168-1241)의 「泰齋記」에는 “대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¹⁾이라고 하면서 “山水를 몹시 사랑하는 사람은 부귀의 낙을 누릴 수 없고, 부귀를 깊이 즐기는 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를 兼하는 자가 적다.”²⁾고

1) 『東文選』 卷66 「泰齋記」, 한국고전종합DB : 夫緣境而漸染者 人之情也.

2) 『東文選』 卷66 「泰齋記」, 한국고전종합DB : 是以愛山水之篤者 不可享富貴之樂 嗜富貴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道德經』의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³⁾고 한 논리를 계승한 것이다. 즉, 인간과 땅 그리고 하늘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인식을 제시한 것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부귀를 추구하기보다 학문탐구에 매진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한 퇴계의 사상은 풍수를 통해 현실 속에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통 입지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풍수는 현대과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하나라고 인식하였던 입지관과 지리관을 살펴보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잣대로 풍수는 그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인식적 사고를 가지고 풍수를 논하고 실제 입지에는 어떤 활용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퇴계선생도 도산서당의 입지선정에 풍수를 반영하였다면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입지선정에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陶山雜詠 併記』에서 제시한 많은 상황적 인식에는 풍수적 사고와 모습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풍수가들보다 더 풍수적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히 풍수적인 용어와 특징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도산서당 입지의 특징을 묘사하는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

之深者 不得致山水之美 而兼之者鮮矣.

3) 『道德經』 25장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4) 당시 안동지방을 비롯한 지방각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의 건물은 대개 승려장인들이 공사를 맡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승려들에 의해 풍수를 살피기도 하였다. (김동욱, 「退溪의 建築觀과 陶山書堂」, 『건축역사연구』 5권 1호 통권 11호, 1996. 6, 26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풍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퇴계의 학문세계를 헤아려볼 수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풍수에 바탕을 둔 논리를 절묘하게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높고도 깊은 학문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풍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호의적인 시각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보다 강하고, 장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도산서당에 대한 특징들을 교육적,⁵⁾ 철학적,⁶⁾ 건축적,⁷⁾ 역사적⁸⁾ 국문학적⁹⁾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논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퇴계의 풍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산서당의 입지에 대한 연구¹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
- 5) 이동경, 김병완, 「〈도산잡영〉〈병기〉에 나타난 퇴계의 교학사상」, 『교원교육』 23권 2호, 2007, 129-147쪽; 안경식, 「教育空間을 향한 退溪의 視線」, 『교육사상연구』 22권 3호, 2008, 119-150쪽.
- 6) 최중현, 「古典 속에 나타난 陶山書堂의 造營思想 연구」, 『도시설계』 6권 1호, 2005, 85-111쪽.
- 7) 김동욱, 「退溪의 建築觀과 陶山書堂」, 『건축역사연구』 5권 1호, 1996, 18-38쪽; 이상해,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퇴계학논집』 110호, 2001, 509-565쪽; 이승우, 「도산서원의 공간위계와 건축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41집, 2008, 359-381쪽.
- 8) 박균섭, 「도산서당 연구-교육공간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 39집, 2011, 263-289쪽.
- 9) 신연우, 「陶山雜詠과 「陶山十二曲」에서의 '興」, 『국어국문학』 133호, 2003, 5, 197-224쪽; 신두환, 「退溪의 漢詩에 나타난 '拙樸의 美」, 『한자한문교육』 20집, 2008, 5, 419-454쪽; 김병권, 「퇴계의 〈幽貞門〉 창작 원리 연구」, 『퇴계학논집』 13집, 2007, 209-230쪽; 신연우, 「이황 山水詩에서 '敬'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28집, 2003, 12, 37-59쪽; 신연우, 「李滉의 「梅花詩」와 「陶山十二曲」의 관련성」, 『한국시가연구』 11집, 2002, 2, 231-253쪽.
- 10) 반오석, 「퇴계와 남명의 山水觀과 書院立地에 관한 考察」, 『민족사상』 5권 1호, 2011, 109-149쪽; 김연호,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立地)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3호, 2008, 189-229쪽.

본 연구에서는 퇴계의 풍수인식과 아울러 풍수를 통한 도산서당에 반영된 전통적 입지관과 환경관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退溪集』을 비롯한 관련 문집과 각종 풍수서를 바탕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退溪의 風水認識과 活用

지리학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지포과학(scientific or quantitative cartography)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박물지(religious or symbolic cosmography)라는 것이다. 땅을 보는 안목이 합리적인 기술과 해석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땅을 신비하고 기묘한 힘을 지니고 있는 실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호 병존되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¹¹⁾ 이것은 결국 땅을 보는데 있어서 주관과 객관, 합리와 신비, 과학과 관습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풍수는 후자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정정도는 신비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해석하는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과학이 가지는 계량화된 모습보다는 두루 몽실한 모습으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입지선정에 있어서 길지라 인식되는 여러 정황들조차도 딱히 규격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단지 극히 관념적인 의미의 균형과 조화라는 틀 속에 넣어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도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¹²⁾

11)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9쪽.

12) 풍수지리설의 한계를 도선의 천년도읍지 예인의 빛나감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이러한 억지야말로 모든 학문을 주술로 간주하고 과학을 신앙처럼 믿는 과학주의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退溪는 風水에 대해 상당히 好意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退溪集』「陶山雜詠 併記」에는 도산서당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風水理論의 핵심이면서도 주공격 대상인 同氣感應論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形勢등 풍수적인 용어를 사용한 다양한 詩와 散文을 남기고 있어 풍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陶山雜詠 併記」에 도산서당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노래한 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난한 집 땅 자주 옮기니.	寒栖屢遷地
간들간들 곧 기울고 허물어졌네.	草草旋傾壤
비록 골짜기 그윽한 것 사랑스러우나	雖憐泉石幽
형세는 끝내 막히고 좁네.	形勢終嫌隘
탄식하며 곧 고쳐 보고자	喟然將改求
높고 깊은 경계 다 가보았네.	行盡高深界
퇴계의 남쪽에 도산 있는데	溪南有陶山
신비한 곳 가까이 있어 좋고도 괴이하네.	近秘良亦怪
어제는 우연히 혼자 찾았는데	昨日偶獨搜
오늘 아침에는 함께 오기로 하였다네.	今朝要共屆
이어진 봉우리는 구름 등으로 오르고	連峰陟雲背
잘리운 산기슭은 강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	斷麓臨江介
푸른 물은 겹 모래섬 두르고 있고,	綠水遶重洲
아득한 봉우리는 천개의 상투로 이어져 있네	遙岑列千髻
아래 한 동네 살피어 구하니	窺尋下一洞
묵은 바람 이에 보상받게 되었네	宿願茲償債

- 중략 -

맹목성에 빠져있는 중요한 보기인 썸이다. 왕조의 흥망성쇠와 왕도의 지속성은 어떤 학문도 주술처럼 보장할 수 없고 어떤 과학도 천여 년의 긴 역사를 담보할 수 없다. (임재해, 「민속문화와 자연생명 인식과 '살림'의 전통」, 『전통사상과 환경』,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원, 2010, 36쪽.)

이것 이룬 땅덩어리 신기하게 느껴지네

辨此感大塊¹³⁾

퇴계는 도산을 얻고 “산수가 맑고 기이하여 내가 구하는 바에 꼭 맞는다.”¹⁴⁾고 하여 상당히 만족해한다. 그러면서 도산은 양쪽의 산이 합쳐져서 긴 골짜기가 되었는데, 산이 별로 높지 않고 경치가 훌륭하며 산 뒤와 시내 남쪽은 모두 좋은 밭과 평평한 밭골이라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속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학문을 탐구하며 살고자 하였던, 그의 생각은 서원 터를 정하는데 있어서 교본처럼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도산서당을 비롯한 퇴계가 관여한 서원 터는 풍수를 활용한 길지에 입지한 공통점을 가진다.

〈표 1〉 퇴계의 풍수적 논리 비교

退溪의 風水言語	退溪文獻	風水的 論理	風水文獻	備考
“여러 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터는 形勢가 끝내 막히고 좁다”	『退溪集』 「陶山雜詠併記」	“산은 간히고 물은 빠져 나간다면 왕은 붙잡히고 제후는 망할 것이다”	『靑鳥經』	論理 一致
‘이어진 봉우리는 구름 등으로 오르고 잘리운 산기슭은 강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	『退溪集』 「陶山雜詠併記」	힘차게 行龍하는 龍勢와 함께 강물을 만나 더 이상 行龍하지 못하고 穴을 맺는 이치를 노래함	『靑鳥經』 『錦囊經』	論理 一致
“그곳은 높은 절벽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굉장히 험하고 센 기운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데 비해서 현재 사는 곳은 현재 사	『退溪集』 「陶山雜詠併記」	“후 殺氣를 띤 산이 있거나 전후좌우 어디에든 몸과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야 말	『明山論』	論理 一致

13) 李滉, 이장우·장세후 옮김, 『陶山雜詠』, 을유문화사, 2007, 26-29쪽.

14) 李滉, 『退溪集』, 「言行錄3, 類編, 樂山水, 한국고전종합DB : 山水清奇 甚合所求.

는 곳이 늙고 병든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다.”		로 진짜 鬼劫으로 그런 곳에 터를 잡아서 안 된다.”		
“竹溪의 여러 安氏가 이 산 밑에서 精氣를 타고 나서 이름이 中原에 까지 떨쳤으니, 반드시 이 산에서 놀고, 이 산에서 즐기고, 이 산에서 읊고, 노래한자가 있었을 것이다.”	『退溪集』 『遊小白山錄』	“地靈은 人傑이니 氣가 화하여 모양을 만든다.”	『雪心賦』	同氣感應論 수용
“거처하는 데에 따라 기운이 변해지고 기르는 것에 따라 체질이 변해진다.(居移氣養移體)’는 것이, 물건이나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退溪集』 『遊小白山錄』	“淺薄하면 사람도 淺薄하게 나고 寬平하면 사람도 寬平하게 나오니라.”	『雪心賦』	同氣感應論 수용



〈그림 1〉 낙동강의 모래톱



〈그림 2〉 강 건너 안산의 모습

〈표 1〉은 퇴계의 언행과 풍수논리를 비교한 것이다. 다수의 언행에서 풍수논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계가 풍수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먼저 『陶山雜詠 併記』에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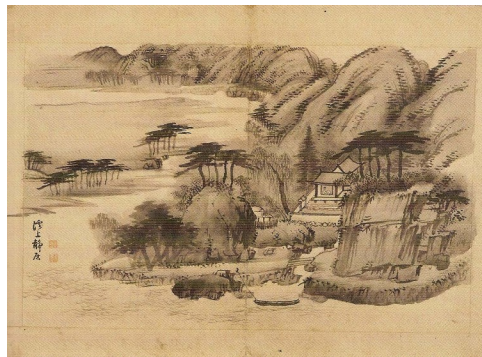
러 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터는 形勢가 끝내 막히고 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靑鳥經』에서 “산은 간히고 물은 빠져 나간다면 왕은 붙잡히고 제후는 망할 것”¹⁵⁾이라고 한 지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풍수이론에 충실한 터 선택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봉우리는 구름 등으로 오르고 잘리운 산기슭은 강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라는 표현 속에는 힘차게 行龍하는 龍勢와 함께 강물을 만나 더 이상 行龍하지 못하고 穴을 맺는 이치를 노래한 것이다. 이어서 ‘푸른 물은 겹 모래섬 두르고 있고’라는 표현은 서당 앞쪽의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며 서당 터에 한없는 生氣를 불어넣어주며 흐르는 모습과 함께 <그림 1>과 같이 모래톱으로 인한 羅星의 형상을 아울러 노래하고 있다. ‘아득한 봉우리는 천개의 상투로 이어져 있네’는 <그림 2>와 같이 강 건너편 앞쪽의 산들이 마치 文筆峰과 같은 형상으로 올망졸망하게 이어져 있음을 隱喻的으로 표현하였다. 어렵게 잡은 도산서당 터에 대해 ‘땅덩어리가 신기하게 느껴지네.’라는 표현을 통해 훌륭한 명당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風水家보다도 더 풍수적인 표현이다. 또한, 陶山書堂을 짓고 생활하면서 느낀 도산서당 터의 형세와 각각의 지형이 가지는 특징을 『陶山雜詠 併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퇴계는 마치 현대인들이 쓰는 풍수 답사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만한 풍수적인 내용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陶山雜詠 併記』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靈芝山の 한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산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명명하였다. 중략 물은 산의 뒤에 있는 것을 퇴계라 하며 산의 남쪽에 있는 것을 낙천이라 한다. 퇴계는 산의 북쪽을 돌아 산의 동쪽에서 낙천으로 들어간다. 낙천은 동취병에서 산기슭을 향하

15)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2-23쪽 : 山囚水流 虜王滅侯.

여 이른다. 멀리 흐르다 깊이 고이고 하며 몇 리를 내려가다가 거슬러 올라 오기도 하는데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다. 금빛 모래며 옥 같은 자갈이 맑고 환하여 김푸르고 차가우니, 곧 이른바 탁영담이다. 서로 서취병의 기슭에 닿아 마침내 그 아래를 따라 남으로 큰 들판을 지나 부용봉 아래로 들어간다. 부용봉은 곧 서쪽의 것이 동으로 와서 형세가 합쳐진 곳이다.¹⁶⁾

『陶山雜詠 併記』에 나타난 퇴계의 글은 입수룡의 흐름과 좌청룡과 우백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형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등은 풍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문장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3〉 鄭澈, 溪上靜居圖(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청량에 왜 살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청량산은 만 길이나 높은 절벽이 위태롭게 깊은 골짜기에 다 달아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든 사람이 편안히 살 곳이 못 된다. 또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려면 그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 지금 낙천은 비록 청량산을 흘러 지나기는 하지만, 그 산 가운데 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나도 청량산에서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뒤로 하고 이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여기는 산과 물을 겸하고 또 늙고 병든 이에게 편하기 때문”¹⁷⁾이라고 하였다. 『明山論』에는

16) 李滉, 이장우·장세후 옮김, 앞의 책, 2007, 59-60쪽 : 靈芝之一支 東出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而命之曰 陶山也. - 중략 - 水在山後 曰退溪 : 在山南 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 趨至山之趾 則演澹泓滄沿泝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磔 清瑩紺寒 則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並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峰下峯 卽西者東 而合勢之處也.

“혹 殺氣를 띤 산이 있거나 전후좌우 어디에든 몸과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야 말로 진짜 鬼劫으로 그런 곳에 터를 잡아서 안 된다.”¹⁸⁾고 하였다. 반면에 “산과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 찬다.”¹⁹⁾고 하였으니 실로 풍수에 충실한 터 잡기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陶山雜詠 併記』「次韻金舜舉 題天淵絕句」에는 비늘이 있는 것은 陰으로 깃털이 있는 것은 陽으로 분류한 『淮南子』의 내용을 인용하여 ‘陰陽을 노래하면서, 隱者가 사는 숲속에 어찌 陽의 기운인 여울물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가.’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계선생은 가장 풍수적인 유학자 중에 한분으로 풍수적인 음양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치 어떻게 주자에게 물어볼까?	此理何從問紫陽
하염없이 바라보네,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을	空看雲影與天光
본체와 쓰임 원래부터 간격 없음 알고 있다면	若知體用元無間
사물마다 하늘의 밝은 이치 묘하게 발양함을 느끼네	物物天機妙發揚
비늘 있는 것은 음에 속한 것이고 깃털있는 것은 양에 속하네	鱗爲陰物羽爲陽
한결같이 날고 잠기어 있는 사이에 절로 찬란한 빛 드러나네	一在飛潛自顯光
바로 그윽한 은자가 살펴보고 즐기는 곳에	正是幽人觀樂處
여울소리 무슨 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가?	灘聲何事抑還揚 ²⁰⁾

17) 李滉, 『國譯退溪集』, 「陶山雜詠併記」, 민족문화추진회, 1976, 39-40쪽 : 清涼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樂山樂水 缺一不可 今洛川雖過清涼 而山中不知有水焉 余固有清涼之願矣。然而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18) 蔡成禹, 김두규 역, 『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199쪽 : 或在殺辰 前後左右 無一歸向者 此眞鬼劫 不可犯之。

19) 蔡成禹, 김두규 역, 위의 책, 51쪽 : 山水相稱 則爲陰陽和 和則爲沖氣。

이 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陰에 해당하는 山에 거주하면서 학문을 탐구하는 자신을 隱者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성리학자들의 隱遁思想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차분한 기운이 지배하는 陰의 공간과 학문탐구라는 공간적 기운이 정확히 부합하는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너무 陰만 강조하면 균형과 조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퇴계는 여울소리를 끌어들이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여울 물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陽의 활기참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陰陽은 특정한 인간의 감성적 조건, 시공, 환경과 생활경험 등과 직·간접으로 계속 연관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陽은 빛, 뜨거움, 여름, 한낮, 남성, 상승, 운동 등과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陰은 어두움, 차가움, 겨울, 밤, 여성, 하강, 정지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²¹⁾ 이와 같이 퇴계는 풍수적 관점에서 陰陽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계선생은 『退溪集』 「遊小白山錄」에서 “竹溪의 여러 安氏가 이 산 밑에서 精氣를 타고 나서 이름이 中原에 까지 떨쳤으니, 반드시 이 산에서 놀고, 이 산에서 즐기고, 이 산에서 읊고, 노래한 자가 있었을 것”²²⁾이라고 하여 山川의 精氣를 받아야 인물이 태어난다는 풍수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놀고 즐기고 詩를 읊고 노래하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雪心賦』에서 “지령은 인걸이니 기가 화하여 모양을 만든다.”²³⁾고 한 풍수논리와 일

20) 李滉, 이장우·장세후 옮김, 앞의 책, 177-179쪽.

『淮南子』 「天文訓」에 나오는 문장으로 毛羽者飛行之類也 故屬於陽 介鱗者蟄伏之類也 故屬於陰.

21) 李澤厚,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상사론』, 한길사, 2007, 334쪽.

22) 『退溪集』, 「遊小白山錄」, 민족문화추진회, 1976, 451쪽 : 竹溪諸安毓秀於茲山之下 名振中原 其必有遊於斯樂於斯咏歌於斯者.

23) 卜應天, 申坪 譯, 『雪心賦』, 관음출판사, 1997, 17쪽 : 地靈人傑 氣化形生.

맥상통하고 있다. 퇴계는 또 “거처하는 데에 따라 기운이 변해지고 기르는 것에 따라 체질이 변해진다.(居移氣養移體)’는 것이, 물건이나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는가.”²⁴⁾라고 하여 산천정기와 함께 사는 곳의 좋고 나쁨의 영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雪心賦』에서 “淺薄하면 사람도 淺薄하게 나고 寬平하면 사람도 寬平하게 나오니라.”²⁵⁾고 한 내용과 어느 한곳 틀린 바가 없다. 즉 퇴계는 산천정기를 받아 인물이 태어난다는 풍수의 同氣感應論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 환경론의 논리뿐만 아니라 풍수가 가지는 환경심리적인 특징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Ⅲ. 陶山書堂의 傳統 立地環境

1. 陶山書堂의 立地環境

『春秋左氏傳』에는 “예는 하늘의 도이고 땅의 규범이며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다. 즉 이것은 천지의 이법이니 사람들은 본받아야 한다.”²⁶⁾고 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선현제향이라는 대의명분을 충족하고 학문탐구라는 실천적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퇴계는 서원이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⁷⁾ 이것을

24) 『退溪集』, 『遊小白山錄』, 민족문화추진회, 1976, 447쪽 : 居移氣養移體 物之與人寧有異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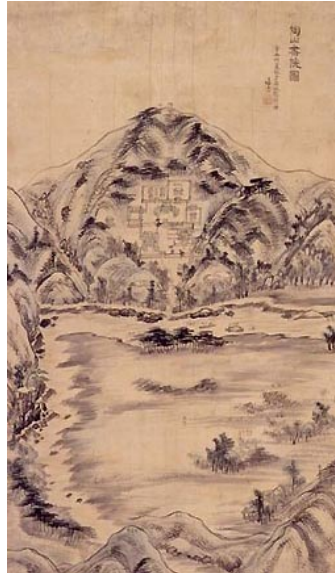
25) 卜應天, 申坪 譯, 위의 책, 421쪽 : 淺薄則出人淺薄 寬平則出人寬平.

26) 『春秋左氏傳』, 『昭公』, 25년 : 夫體天地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天地之經 而民實則之.

27)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361쪽.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수 길지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내재되어 있다.

퇴계는 『陶山雜詠 併記』에서 “靈芝山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陶山이 되었다.”²⁸⁾ 고 하여 도산서원의 祖山은 靈芝山이고 主山은 陶山이라고 밝히고 있다. 祖山은 主山の 祖上에 해당하는 산으로 오랜 行龍을 통해 험한 기운을 털어내는 剝換을 하고 精氣를 모아 주산을 일으켜 올린다. 主山은 穴處에 氣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혈처의 성질을 대변하는 산이 된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의 기대를 한 몸



〈그림 4〉 鄭澈, 陶山書院圖

에 받고 우뚝 솟아오른 주산은 자신의 정기를 듬뿍 담아서 옥동자를 토해낸다. 이곳이 곧 혈처에 해당하는데 혈은 정기가 응결된 곳으로 가장 양명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이를 풍수에서는 ‘天藏地秘’라 하여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극히 소중하지만 찾기 어려운 존재로 여겼다. 따라서 이곳에 묘를 조성하기도 하고 건축물을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혈장은 넓은 면적에 걸쳐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을 입지시키게 된다. 이것은 인지상정으로 혈처에 어떤 건축물이 입지하느냐는 바로 정체성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처에는 퇴계가 거쳐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이 입지한

28) 『退溪文集』 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것이다.

『靑鳥經』에는 “복되고 후덕한 땅은 모습이 온화하여 궁색하지 않고 사방의 산들은 두루 합하여 둘러 감싸주니 그 주와 객이 법에 맞는다”²⁹⁾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퇴계는 『陶山雜詠 併記』에서 다음과 같이 도산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며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이 산을 빙 둘러싼 것 같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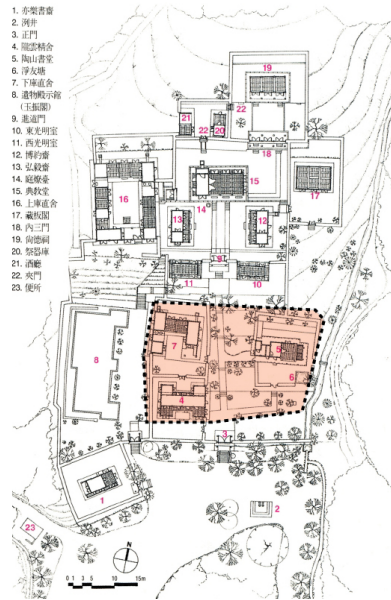
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풍수에서 말하는 청룡과 백호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룡과 백호는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錦囊經』 「氣感編」에는 “기는 바람을 받으면 흩어진다.”³¹⁾고 하는 답을 제시한다. 따라서 좌청룡과 우백호는 혈에 응결된 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퇴계는 “왼쪽에 있는 산을 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西翠屏이라 한다. 동취병은 淸涼山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서취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³²⁾고 하였다. 동취병과 서취병은 ‘벌려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라든지 ‘우뚝우뚝 솟았다’ 라는 표현 속에 어디에도 풍수라는 표현은 없다. 이와 같이 풍수보다 더

29) 『靑鳥經』: 福厚之地 雍容不迫 四合周顧 下其主客.

30) 『退溪文集』 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

31) 『錦囊經』, 「氣感編」: 氣乘風則散.

32) 『退溪文集』 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山之在左曰東翠屏 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淸涼 至山之東 而列岫縹緲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峨.



〈그림 5〉 도산서원 배치도
(출처 : 이상해, 『서원』, 34쪽)

여 陽에 속하고 質은 땅에 근본하여 陰에 속하는 것³⁴⁾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양은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양 두 기 중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된다³⁵⁾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黃帝內經』 「陰陽應象大論」에는 “음양이란 천지의 질서이고 만물의 법칙이고 모든 변화의 근원이고 죽고 사는 것의 원천이고 신명의 창고³⁶⁾”라고 하여 음양을 천지의 기본질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수적인 표현이 가능하려면 풍수를 모르고는 가능하지 않다.

퇴계의 학문세계를 어떤 식으로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방면에 걸쳐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풍수만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깊고 높은 경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퇴계의 학문적 깊이를 짐작키 어렵다.

『農巖集』에는 “천지는 본디 하나의 기인데 그중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네. 이는 음양이 나누어진 것³³⁾”이라고 하면서 “기는 하늘에 근본하

33) 『農巖集』 卷13, 「書, 答李同甫 戊午, 한국고전종합DB : 天地 本一氣也 而其輕清者爲天 重濁者爲地 此陰陽之分也.

34) 『農巖集』 卷13, 「書, 答李同甫 戊午, 한국고전종합DB : 氣則本天而屬陽 質則本地而屬陰.

35) 『農巖集』 卷13, 「書, 答李同甫 戊午, 한국고전종합DB : 須知陰陽二者 不能相無.

36) 『黃帝內經』, 「陰陽應象大論」 :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음양은 세상의 시작이자 끝으로 음양의 논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입지와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양의 논리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풍수도 음양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과 물의 음양논리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리를 구성한다. 여기에 더해 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물의 넓이와 양이 가지는 물리적인 크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환포하는 형상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상과 질 그리고 아름다움까지를 일정한 틀 속에 넣어 일치시키는 특징과 부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陶山雜詠 併記」에서 “조그마한 골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려다보이고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였으며,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며 돌우물은 물맛이 달고 차서 참으로 수양할 곳으로 적당”³⁷⁾하다고 하여 조금만 골짜기와 강 그리고 들, 우물로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당의 크고 작은 요소들을 음양의 틀 속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나침에서 오는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서당 동쪽 구석에 조그만 못을 파고 거기에 蓮을 심어 淨友塘”³⁸⁾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매화·대[竹]·소나무·국화를 심고 있다. 극히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 자연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즉, 주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神明之府也.

37) 『退溪文集』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窅遶廓 巖麓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38) 『退溪文集』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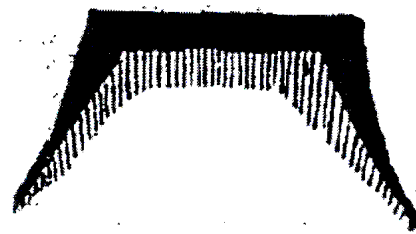
2. 陶山書堂의 風水環境

『星湖僊說』에는 “산은 淸涼山에서부터 뺀어 내려 물을 따라 서쪽으로 달리다가 영지산 줄기와 더불어 하류에서 합쳤으니, 이른바, ‘동·서의 두 翠屏이라.’는 것이며, 선생이 손수 陶山書堂을 일으켰는데, 후인들이 잇달아서당 뒤에다 書院을 세운 것”³⁹⁾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산서원은 퇴계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을 건설한 이후에 강당과 사당 등을 추가로 건설하여 도산서원이 되었다. 도산서당은 청량산 자락의 풍수 길지에 입지하고 있어, 퇴계는 굉장히 흡족해 한다. 도산서당의 입지선정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선정하였으며, 배산임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습이다.

도산서당의 주산인 陶山은 巨門 土星體인데, 貪狼 木星體와 武曲 金星體와 더불어 三吉星이다. 이러한 거문 토성체에 대해 楊筠松은 『撼龍經』에서, “巨門은 尊星으로 性品이 端正하고 겨우 祖宗山을 떠나서 높이 쳐들리니, 星峰이 스스로 더불어 여러 星峰을 不尖하고 不圓하니 그 體가 方



〈그림 6〉 陶山書院의 主山-巨門星



〈그림 7〉 巨門 土星體

(출처: 撼龍經·疑龍經比注校補)

39) 『星湖僊說』卷17, 「人事門, 陶山祠, 한국고전종합DB : 山從淸涼來者 洵流而西 與靈芝之幹襟合於 下流所謂東西兩翠屏也 先生手勅陶山書堂 後人因建院于堂後.

正”⁴⁰⁾하다고 하였다. 胡舜申은 『地理新法』에서 “대개 巨門은 天醫라고 부르는데 帝王의 주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다면, 『地理人子須知』에서는 “土의 體는 모나지만 正하고 성품은 靜하고 더디다.⁴¹⁾ 尊星이니 主는 極品王侯 勳業崇高 慶澤綿衍 五福具備”⁴²⁾한다



〈그림 8〉 陶山書院의 案山-文筆峰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풍수서에서 거문 토성체를 길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산서당의 주산에 걸맞다고 할 것이다. 『疑龍經』「下篇」에는 “무릇 주산이 있으면 반드시 마주하여 안산이 있기 마련”⁴³⁾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주산이나 객산 모두 단정해야 해야 하며, 양쪽 모두 뾰족하거나 둥근 모습으로 서로 마주뵈야 한다.”⁴⁴⁾고 하여 三吉星의 형상을 선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산서당의 안산은 탐랑 목성체의 文筆峰 형상으로 『疑龍經』의 요구에 부합한다.

『論語』「爲政」편에는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모든 별들이 그에게 향하는 것”⁴⁵⁾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혈이 있으면 주위의 모든 산들은

40) 楊均松, 남궁승 역, 『撼龍經』, 대훈, 2009, 96쪽 : 巨門尊星性端莊 纔離祖宗即高仰星峰自與衆星別 不尖不圓其體方.

41)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 武陵出版社, 1971, 133쪽 : 土之體方凝而正土之性鎮靜而遲.

42) 徐善繼, 徐善述, 위의 책, 130쪽 : 尊星 主極品王侯分茅胙土勳業崇高慶澤綿衍五福金運祚永.

43) 楊筠松, 김두규 역, 『撼龍經·疑龍經』, 「下篇」, 비봉출판사, 2009, 271쪽 : 大凡有形必有案.

44) 楊筠松, 김두규 역, 위의 책, 「疑龍十問」, 296쪽 : 主客皆端正 兩岸尖圓兩相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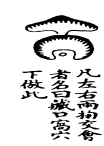



45) 유교문화연구소 옮김, 『論語』, 「爲政」, 성균관대출판부, 2008, 26쪽 : 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

혈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법이다. 따라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혈은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환포한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주산은 혈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楊筠松은 『疑龍經』「下篇」에서 穴은 主山의 형상에 따라 穴의 형상이 정해져 있고 主山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짜 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높은 산이나 평지에서나 穴은 주산의 봉우리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해진 이를 보지 않고 어찌 망녕되게 鉗穴이니 乳穴이니 할 수 있겠는가? 穴이 主山의 형상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穴은 결코 가짜 穴이거나 진짜 穴이 아닌 것이다. 主山의 봉우리가 貪狼이면 그 아래 맺어지는 형은 乳穴이며, 武曲이면 그 아래 맺어지는 穴은 鉗穴일 것이다.⁴⁶⁾

또한 『撼龍經』「變穴編」과 『疑龍經』「變星編」에는 主山의 형상에 따라 穴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 즉 貪狼星 主山은 乳頭穴을, 巨文星 主山은 窩穴을, 武曲星 主山은 鉗釵穴을, 祿存星 主山은 犁瓣頭穴을, 文曲星 主山은

〈표 2〉 穴 형상 분류(출처 『人子須知』)

 <p>凡左右兩山皆 丁做此 者名曰窩穴</p>			 <p>左右兩山皆 抱而紐兮</p>	
窩穴	鉗穴	乳穴	突穴	

46) 楊筠松, 김두규 역, 위의 책, 「下篇」, 259쪽 : 高低平地隨星 豈肯妄爲鉗乳穴 穴若不隨龍上星 斷然是假不是眞 請君更將舊墳覆 貪星是乳武鉗形.

이 부분은 譯者도 지적하였듯이 武曲과 巨門의 混同의 문제이다. 『疑龍經』에 묘사된 내용은 武曲과 巨門이 서로 반대로 묘사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張益鏞는 『龍水正經』, 60-61쪽에서 巨門星은 鉗釵穴을 맺고 武曲星은 圓窩穴을 맺는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경연은 『정통풍수지리』에서 巨門星은 鉗釵穴을 맺고 武曲星은 圓窩穴을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고 있으며, 譯者의 주장처럼 楊筠松이 武曲과 巨門이 혼동되어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掌心穴을, 破軍星 主山은 戈矛穴을 맺고 左輔 右弼星 主山은 燕巢穴을 맺는다고 한다.⁴⁷⁾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살펴보면 도산서당의 혈형은 窩穴이다.

『葬經翼』에서는 “산이 멈추고 氣가 모인 곳을 穴”⁴⁸⁾이라 하였다. 가장 단단하고 산의 정기가 모두 모인 곳이기 때문에 풍수가 추구하는 최종점에 위치한다. 또한 중심이며 핵이고 가장 내측에 위치한 동시에 주변의 모든 환경이 혈을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풍수논리도 지형에 의해 성립되는 위계를 갖게 되는데, 가장 높은 위계 또는 중심은 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이 중심의 상징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어 일반적인 지형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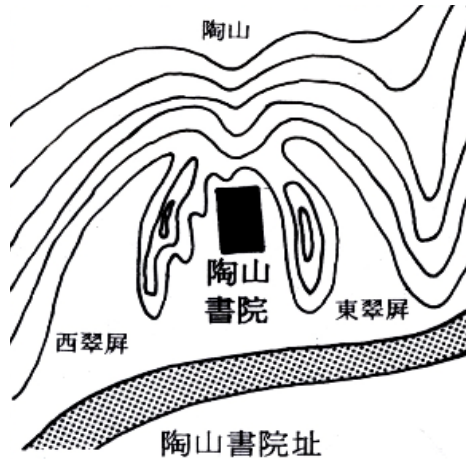
『管子』는 “땅이란 만물의 근원으로, 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움과 추악함, 현명함과 못남, 어리석음과 뛰어난이 생기는 곳”⁵⁰⁾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서원의 입지로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터를 선정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도산과 낙동강은 절묘한 조화를 바탕으로 도산서당을 中庸의 場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나치게 험하지도 험소하지도 않은 조화로움을 구성하여 자칫 고요함만이 강조되기 쉬운 산속의 입지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孔子는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智者樂水)”고 하였으니 도산서당과 같이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 것은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서 유교전통 문화에서 삶과 죽음을 감싸고 우리의 사상을 잉태

47) 張益鎬, 『龍水正經』, 종문사, 1989, 60-61쪽.

48) 繆希雍, 『葬經翼』, 『穴病篇』, 北京: 華齡出版社, 2009, 468쪽: 夫山止氣聚 名之曰穴.

49) 장성준, 「풍수지리 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5호, 1978, 19쪽.

50)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管子』, 소나무, 2006, 534쪽: 地者 萬物之本原 諸生之根苑也 美惡 賢不肖 愚後之所生也.



〈그림 9〉 도산서원의 입지

(출처 :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靈芝山坤申落脈慶北安東市陶山面土溪里
 巨文星下鳳凰抱卵形結穴癸入首良得申破
 癸坐丁向左旋土星水安東湖去水龍長虎短
 江越便人工卯有
 庚寅年七月八日兪山張永植書



〈그림 10〉 陶山書院 山圖-鳳凰抱卵形

(출처: 박정해, 한양대박사학위논문, 159쪽)

해 왔던 터는 높고 험한 산이 아니라 기상이 모인 산자락에 그윽한 계곡을 끼고 있는 아늑한 자리⁵¹⁾라 할 때 도산서당은 더 할 수 없이 부합하는 모습이다.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구성된 도산서당의 형국은 아늑한 모습으로 마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봉황은 상상속의 신성한 새의 일종으로 도산서당의 상징성을 제시한다.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鳳凰抱卵形은 새로운 인재의 탄생과도 연결될 수 있다. 퇴계의 학문을 이어 받은 수많은 유생들은 조선 유학과의 양대 세력 중에 하나인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⁵²⁾ 그림에도 불구하고 도산서당은 최상

51)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3, 248-249쪽.

52) 『後光世牒』, 「附錄」에 따르면 “이황의 학풍을 따른 자는 당대의 柳成龍·鄭述·金誠一·李山海·鄭琢 등을 위시한 260여 인에 이르러 영남학파 및 친 영남학파를 포괄한 주리파 철학을 형성하게 했다.”고 한다.



〈그림 11〉 陶山書院의 入首龍

의 길지라 하기에는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입수룡이다. 입수룡은 혈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입수룡의 행룡은 逶迤起伏와 같은 변화무쌍함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또한 大穴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도산서당의 입수룡은 〈그림 11〉과 같이 조금은 밋밋하고 넓게 퍼져 강한 지기의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다. 그 외에 주산인 陶山에서 출발한 入首龍을 호위하고 따라온 元辰水는 도산서당의 뒤를 곧장 달려들 것 같은 불안한 지형이 아쉬운 모습이다.

河崙(1347-1416)에 의해 계룡산 신도안 입지 불가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胡舜申의 『地理新法』은 조선시대를 풍미한 향법이다. 『地理新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入首龍을 基準으로 坐向과 得水, 水口의 大五行과 胞胎法, 九星의 關係性을 따져 吉凶을 살피게 된다. 陶山書堂의 入首龍은 左旋 癸龍으로 大五行의 土局에 해당한다. 胞胎法과 九星을 살펴보면, 癸는 胞胎法으로는 臨官에 해당되고 九星은 武曲에 해당되어 吉한 龍임을 알 수 있다. 陶山書堂의 坐向은 癸坐丁向으로, 坐向의 癸와 丁을 大五行으로 살펴보면 癸는 土에 해당되고 丁은 金에 해당한다. 따라서 入首龍 土(癸龍)와 坐向의 土(癸坐)는 같은 土로서 兄弟에 해당되고, 向(丁向)은 金으로 土生金하여 子孫에 해당되니 吉한 構成이다.

水法을 적용하여 보면 艮 得水에 申 破이다. 艮方은 胞胎法으로는 冠帶에 해당되고 九星은 文曲에 해당되며, 申 水口는 胞胎法으로는 死에 해당되고

九星은 廉貞에 해당되어 ‘吉한 方位에서 得水하고 凶한 方位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地理新法』의 요구사항에 附合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坐向과 得水, 水口 등을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地理新法의 理論에 附合하지 않는다.

IV. 맺음말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한 도산서당은 자연과 하나 되어 학문탐구에 매진코자 한 퇴계의 바람이 반영되어 건설하였다.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退溪는 風水에 대해서 상당히 好意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退溪集』 「陶山雜詠 併記」에서 도산서당과 관련한 언급에는 풍수서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퇴계의 절묘한 풍수활용성을 제시한다. 또한 詩와 散文을 통해 『雪心賦』 등의 지령은 인걸이라는 논리와 부합하는 風水理論의 핵심인 同氣感應論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 환경론의 논리뿐만 아니라 풍수가 가지는 환경심리적인 특징까지도 아우른 것이다.

퇴계의 학문세계를 어떤 식으로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다방면에 걸쳐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수만을 놓고 보더라도 본인이 직접공부하고 터득한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를 제시하고 있어 굉장히 높고 깊은 경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黃帝內徑』 「陰陽應象大論」에 바탕을 둔 陰陽의 논리를 공간속에 끌어들이어 차분한 기운을 이용한 학문탐구와 활기찬 陽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시냇물을 끌어들이는 공간을 구성한다. 혈처에 서당을 건설하고 옆에 淨友塘을 조성한 모습에서도 음양론의 공간구성원리를 현실 속에 실천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한

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자연과 하나 되어 학문 탐구에 매진한다는 유학의 은둔사상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이러한 음양논리와 풍수사상 그리고 유학사상을 총집결하고 퇴계의 학문과 풍수실력이 반영되어 영남학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도산서당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도산과 낙동강이 하나로 어울려져 天人合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中庸의 場에 입지하였다. 지나치게 험하지도 협소하지도 않은 조화로움을 구성하여 자칫 고요함만이 강조되기 쉬운 산속의 입지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터가 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교전통 문화에서 삶과 죽음을 감싸고 우리의 사상을 잉태해 왔던 터는 높고 험한 산이 아니라 기상이 모인 산자락에 그윽한 계곡을 끼고 있는 아늑한 자리라 할 때 도산서당은 더 할 수 없이 부합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둘째, 번잡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퇴계는 50세에 낙향하여 도산서당과 隴雲精舍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게 된다. 퇴계 사후 강당과 사당을 지어 서원으로 확대개편된 도산서원은 퇴계학파의 중심서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셋째, 풍수논리에 부합하는 길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退溪集』「陶山雜詠 併記」에는 마치 한편의 시를 대하는 것처럼 퇴계는 도산서당의 주변 지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퇴계는 여러 번의 이사 끝에 현재 도산서원이 들어선 곳에 서당을 건설하고 굉장히 만족해한다. 여기에는 퇴계선생의 입지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현대풍수가들이 흔히 쓰는 답사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도산서당에 반영된 풍수적 특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산인 陶山은 巨門 土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도산서당의 안산은 文筆峰의 형상이다. 이러한 문필봉은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서원건축의 시각적인 범위를 책임지는 형상으로서는 가히 최고라 할 것이다.

둘째,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구성된 도산서당의 형국은 마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탄생을 예고하는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인 鳳凰抱卵形은 새로운 인재의 탄생과도 연결될 수 있다. 퇴계의 학문을 이어 받은 수많은 유생들은 조선 유학을 발전시켜 조선 유학의 양대 세력 중에 하나인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

셋째, 도산서당의 좌향은 호순신의 지리신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즉, 도산서당의 입지는 형세론에 바탕을 두고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자에 의해 주창된 『山陵議狀』은 형세풍수를 핵심논리로 구성하는데, 이러한 풍수논리는 주자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주자의 거울이라 일컬어지는 퇴계는 도산서당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주자의 형세풍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퇴계는 풍수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산서당의 입지를 풍수논리에 따라 선정하였고 유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 참고문헌 】

『道德經』 25장.

『春秋左氏傳』, 「昭公」 25년.

『東文選』 卷66, 「泰齋記」, 한국고전종합DB.

『星湖僿說』 卷17, 「人事門」 陶山祠, 한국고전종합DB.

『退溪文集』 卷3, 「詩」, 陶山雜詠, 한국고전종합DB.

-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3, 248-249쪽.
- 김동욱, 「退溪의 建築觀과 陶山書堂」, 『건축역사연구』 5권 1호 통권 11호, 1996, 6, 26쪽.
-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6, 23쪽.
-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管子』, 소나무, 2006, 534쪽.
- 노병한 역, 『發微論』, 안암문화사, 2006, 463쪽.
- 박정혜, 「서원건축의 좌향 결정과 풍수적 요인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권5호(통권72호), 2010, 61쪽.
- 卜應天, 申坪 譯, 『雪心賦』, 관음출판사, 1997, 17쪽, 421쪽.
-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 武陵出版社, 1971, 130쪽, 133쪽.
- 楊筠松, 김두규 역, 『撼龍經·疑龍經』, 비봉출판사, 2009, 259쪽, 271쪽, 296쪽.
- 楊均松, 남궁승 역, 『撼龍經』, 대훈, 2009, 96쪽.
- 繆希雍, 『葬經翼』, 北京 : 華齡出版社, 2009, 468쪽.
-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361쪽.
- 李澤厚,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상사론』, 한길사, 2007, 334쪽.
- 李滉, 『國譯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1976, 39-40쪽.
- 李滉, 『退溪集』, 「遊小白山錄」, 민족문화추진회, 1976, 447쪽, 451쪽.
- 李滉, 이장우·장세후 옮김, 『陶山雜詠』, 을유문화사, 2007, 26-29쪽.
- 임재해, 「민속문화와 자연생명 인식과 '살림'의 전통」, 『전통사상과 환경』,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원, 2010, 36쪽.
- 張聖浚, 「風水地理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관한 考察」, 『大韓建築學會誌』 22권 85호, 1978, 19쪽.
- 張益鎬, 『龍水正經』, 중문사, 1989, 60-61쪽.
- 전재강, 『선비문학과 소수서원』, 박이정, 2008, 256쪽.
- 蔡成禹, 김두규 역, 『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51쪽, 199쪽.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9쪽.
-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2-23쪽.

Abstract

Traditional Location Environment of Dosan Seodang(陶山書堂)

Park, Jeong-Hae

Feng shui which has important meaning in traditional location of Korea has also another meaning of environment-friendly value in modern science. Moreover the view on it has been changed due to its acceptable logic. Feng shui that had been a standard for the view of traditional location and geography should not be neglected. It is important how Feng shui has to be acknowledged and how it has to be actually applied to modern life. Yi Hwang(李滉) whose pen name is Toegye(退溪) applied Feng shui to Dosan Seodang(陶山書堂, a village school in the Joseon Dynasty) for selecting the location. Feng shui on a theory of the environment situation(形勢論) that was resulted from 『San-Reung-Eui-Jang(山陵議狀, a record of discussion about mountain and hill)』 seriously influenced the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The logic of Feng shui which puts emphasis on the theory of the environment situation appears not only Dosan Seodang but also overall Seodangs in Youngnam(嶺南) area in Korea commonly, which resulted in the conservative awareness of Feng shui in Yongnam area. Therefore, Dosan Seodang that played a pivotal role for the Yongnam school by Toegye's study and Feng shui was constructed by the theory of the environment situation in Feng shui.

Key Word

Toegye(退溪), Dosan Seodang, Feng shui, theory of the environment situation(形勢論), traditional location(傳統立地)

▪ 논문투고일 : 2012.6.26 심사완료일 : 2012.7.27 게재결정일 : 2012.8.6